

시편 1편

유 지승 옮김
(토마스 철학 학교)

1.
그 사람들의 복이여!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아니 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 하는.
 2.
그러나 여호와와 토라 가운데 기쁨이 있어,
밤낮으로 그 토라 가운데 묵상하는.
 3.
이는 제때에 과실을 내어놓는
강가에 심겨진
잎이 말라 떨어지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려는 일마다 잘되리.
 4.
악인은 그와 같지 않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으니.
 5.
그리하여
악인들은 심판 가운데 감히 설 수 없으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 6,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며
악인들의 길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리라.
- 아멘.

첫 구절이 다른 번역과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다소문법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을 복잡한 이야기를 마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첫 구절에 등장하는 ‘에쉐르’는 남성 명사 복수의 연계형입니다. 그 용법은 ‘~의 복들’이란 식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 구절은 “그 사람의 복이여!”입니다. 우리 말 성서에선 이 시편의 시적 느낌에 가지는 감탄의 의미가 좀 약한데, 원래는 “그 사람의 복이여!”라면 복에 대하여 감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복에 대한 감탄이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복을 가진 이에 대한 칭송이라기보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편이 이야기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시편이 이야기하는 복은 불사(不死)나 재물(財物)이 아닙니다. 그 복이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 복이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여호와와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그 자체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일 것이라고, 그러한 삶 자체가 바로 복이란 것이죠.

요즘 열심히 번역하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주의 기도 주해』에 따르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찬양하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주님의 뜻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만, 그것 역시 주님의 뜻이며, 그 가운데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는 주의 기도 첫머리에서 우리가 신의 노예가 아니라, 신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에 깊이 감사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우리는 신의 노예가 아니라, 그의 아들이란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러한 이야기를 읽고서 다시 시편을 읽어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혹은 그 복이란 것이 우리의 바람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아들인 우리가 여호와와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며, 그의 말씀의 달콤함 가운데 기쁨을 알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이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여호와는 우리의 삶에 깊이 계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돌보신다는 것!

나는 복스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은 복 그 자체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 복의 외부에로 나아가 열심히 다른 곳에서 복을 찾아 살아간 것은 아닌가! 내안을 들여다봅니다.

복은 우리가 우리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의 말씀 속에서 묵상하는 기간 동안 이미 우리에게 던져진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을 번역하며 읽으며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편 한 구절 속에서 웃으며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것이 복이겠지요. 더는 저도 다른 곳에서 짝뚱복을 구하려 다니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에도 시간되면 종종 저의 Lectio divina 올리겠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신적 독서란 말로, 성서를 묵상하며 읽음을 의미합니다. 후훗...>

